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지정학 경쟁시대에 통일지향의 3세대 대북정책  
[발제자] 전성훈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일 시] 2020년 06월 11일(목) 오전 10시  
▶ 온라인 You Tube 영상



☒ 문자 후원  
#7079-4545

제341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탈냉전시대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냉전이 와해된 시점부터 2016년까지의 30여 년을 의미한다. 이 시기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였고 서방세계는 공산국가도 경제가 발전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대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지정학 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방세계는 탈냉전시대에 추구한 교류협력정책이 독재국가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독재국가에 정면 대응하기 시작했고 지정학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열되었다. 21세기 지정학 경쟁시대는 '자유체제'와 그 대척점에 있는 '독재체제'의 충돌이다.
- 한국의 대북정책은 세계질서가 요동칠 때마다 그 흐름에 따라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군사적 대결정책인 '1세대' 정책과 탈냉전시대의 화해협력정책인 '2세대' 정책에 이어 이제는 지정학 경쟁시대에 맞는 '3세대'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독재정권과 협력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가정은 북한의 핵 보유 상황에서는 맞지 않으므로 폐기해야 한다.
- '3세대' 대북정책은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이원화 대북정책이다. 북한 정권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으로, 주민은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간주하여 남북관계의 이중성 딜레마를 해소해야 한다. 독재정권을 압박하여 도발과 폭정을 견제하고, 북한의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변화를 이룰 힘을 기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 탈냉전시대와 화해협력정책

### 1. 탈냉전시대

- ◆ 탈냉전시대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냉전이 와해된 시점부터 2016년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기 전까지의 30여 년을 의미한다.
- ◆ 탈냉전시기 자유민주주의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였고 공동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과 함께 '평화만능주의'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서방세계는 공산국가들도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적으로 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대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 ◆ 실제로 러시아는 1994년 NATO의 평화파트너십과 1998년 G8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의 동반자로 부상했다. 중국도 2001년 WTO에 가입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이익당사자이자 G-2 시대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 2. 화해협력정책

- ◆ 냉전구도 와해와 맞물려 남북관계도 급격히 변화하였다. 공산주의의 붕괴로 위기를 맞은 김일성은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노태우 대통령도 북방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추진했다.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장밋빛 청사진을 담은 탈냉전시대의 대표 문건이다.

- ◆ 김영삼 정부에서 ‘3단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공식 통일방안으로 확립되었다. ‘3단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 교류협력단계 2. 남북연합단계 3. 통일국가수립단계로 화해협력정책의 철학적 기반이자 정책적 토대이다.
- ◆ 탈냉전의 흐름을 반영하여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희망과 선의를 갖고 대북지원에 방점을 두었다. 이는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모두 동반자로 보는 ‘정권과 주민 동일체’ 관점에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의 ‘정권’과 우리가 도와야 할 북한의 ‘주민’을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이중성 딜레마’가 야기되었다.
- ◆ 이 정책은 북한의 경제발전, 비핵화, 정치민주화에 모두 실패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103억 달러가 넘는 대북지원의 결과로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이다. 이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독재강화에 악용되었다. 오히려 대북 감상주의가 만연해지고 경계심만 약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근본 원인은 대북지원이 북한의 주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북한의 독재체제 구조에 있다.

### ◆ 지정학 경쟁시대의 개막

- ◆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지정학 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러시아가 유럽에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이란이 중동에서 서방진영 중심의 자유질서에 도전하며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서방세계는 과거 탈냉전시대에 추구한 교류협력정책이 독재국가의 정치적 민주화가 아니라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식 개혁개방’이 공산당 1당 지배의 독재강화와 패권장악에 악용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서방세계는 탈냉전의 평화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독재국가에 정면 대응하기 시작했고 지정학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열되었다.
- ◆ 21세기 지정학 경쟁시대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체제’와 그 대척점에 있는 ‘독재체제’의 충돌이다. 세계화의 후퇴와 민족주의 발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정학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COVID-19 사태로 드러난 미국과 중국의 마찰은 정치·경제·군사·문화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는 미·중 충돌의 단면에 불과하다.

### ◆ 통일지향의 3세대 대북정책

- ◆ 한국은 세계질서의 판이 바뀐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좌충우돌하고 있다. 탈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북한의 핵과 같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경각심을 갖기

보다 상무정신까지 와해되어 버렸다.

- ◆ 한국의 대북정책은 국제질서의 변화와 맞물려 세계질서가 요동칠 때마다 그 흐름에 따라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군사적 대결정책인 ‘1세대’ 정책과 탈냉전시대의 화해협력정책인 ‘2세대’ 정책에 이어 이제는 지정학 경쟁시대에 맞는 ‘3세대’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독재정권과 협력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가정은 북한의 핵 보유 상황에서는 맞지 않으므로 폐기해야 한다.
- ◆ ‘3세대’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이원화 대북정책이다. 화해협력정책이 실패한 것을 각성하고, 노동당의 독재가 지정학 경쟁시대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으로, 주민은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간주하는 ‘정권과 주민의 차별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이중성 딜레마를 해소해야 한다. 북한의 노동당은 중국 공산당처럼 외부의 지원으로 독재를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데 악용하였다. 이 같은 중국식 개혁개방이 북한의 길이 되어선 안 된다.
- ◆ 3세대 대북정책은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등대로 삼는 것이다. 독재정권을 최대한 압박하여 도발과 폭정을 견제하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변화를 이룰 힘을 기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북한에 자유가 뿌리내려야만 독재를 종식하고 평화통일도 가능해진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